

광주시립미술관이 중외공원 일대에 추진하는 '아시아예술정원 조성사업'은 문화정원, 생태예술놀이정원, 하늘다리 등이 어우러진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사진은 문화정원과 하늘다리 조감도.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중외공원, 예술과 자연·놀이와 교육이 머무는 공간으로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 사업비 190억 투입 2030년 완료 계획
문화정원·생태놀이정원·하늘다리... 디지털아트아카이빙플랫폼 건립

테마가 있는 문화정원, 생태예술놀이정원, 하늘다리. 광주시립미술관, 광주역사민속박물관, 광주문화예술회관, 광주비엔날레전시관, 국립광주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품은 중외공원이 문화예술과 자연·생태가 어우러진 명실상부한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한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송보)은 중외공원을 예술과 자연, 놀이와 교육이 함께하는 문화현장으로 탈바꿈시키는 아시아예술정원 사업을 진행한다. 또 분관인 하정웅미술관에 아시아디지털 아카이빙 플랫폼을 건립하고 본관 카페를 3개층으로 확장하는 등 인프라 확충에도 박차를 가한다. <아시아 예술 정원 조성 사업

광주시립미술관은 지난 2020년부터 아시아예술정원조성사업을 추진해왔다. 도시공원위원회 자료와 공청회, 시민 설문조사 등을 진행하며 공간 구성 등에 대한 논의를 거쳤고 오는 5월 착공과 함께 본격적인 조성 사업을 시작한다. 5만6200㎡ 규모인 아시아 예술정원 조성사업은 아시아의 경관을 테마로 한 문화정원, 생태예술놀이정원, 하늘다리 설치 프로젝트로 구성돼 있다. 국비 95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90억 원이 투입된 사업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오는 4월까지 마무리한 후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문화정원은 시립미술관과 역사민속박물관, 비엔날레 전시관의 중앙 녹지대 3900㎡에 중앙아시아, 동남아, 서아시아 등 아시아 경관을 특색화한 아시

아문화마당, 아시아 경관테마정원, 전통문화정원을 꾸미는 프로젝트다. 정원에는 생태예술작가들의 작품도 설치되며 아트벤치 등을 배치,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2024년부터는 디지털아트 가든도 조성된다. 디지털아트가든은 뉴미디어아트 프로젝트 구현에 따른 미래형 예술로 각광받고 있는 추세로 향후 아시아예술정원전체로 확장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가 미디어아트창의도시인 점을 감안하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보인다. 아시아 생태 예술 놀이정원은 1981년 개장한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 인근 1만 5000㎡ 공간에 조성된다. 생태, 자연, 놀이, 예술이 공존하는 어린이 체험공간으로 유아 놀이 공간, 자유 놀이 공간, 숲놀이 공간과 가족들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 데크, 파고라 등을 설치해 이용객 친화공간으로 조성한다. 특히 유료로 운영했던 어린이대공원 유원 시설은 아이들의 눈높이에서 흥미를 유발하고 오

감 발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공간으로 변신, 무료로 개방한다. 하늘다리는 중외산으로 단절된 문화예술회관과 어린이 놀이정원을 연결하는 공중보행로다.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립미술관과 비엔날레전시관으로 접근하기 어려웠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340m의 공중연결로를 조성하는 프로젝트로 산책을 통해 중외공원의 아름다운 숲을 조망할 수 있다. 또 하늘다리의 사·종점부와 정상부에 엘리베이터 3개소를 설치, 이동이 어려운 교통약자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한편 미술관 본관의 카페테리아도 변신한다. 음료만 가능했던 카페가 식음료로 메뉴를 확대해 3층 규모로 증축되며 내년 상반기에 준공·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디지털아트아카이빙플랫폼 건립> 광주시립미술관은 아시아 최고의 디지털아트아카이브센터를 목표로 디지털아트아카이빙플랫폼

을 분관인 하정웅 미술관에 건립한다. 2023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올해 11월 착공할 예정인 아카이빙플랫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국비 18억4500만원을 포함, 총사업비 39억원이 투입된다. 건물 규모는 1385㎡며 3월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다. 플랫폼은 아시아의 역사와 정체성을 담보한 디아스포라와 민주, 인권 주제의 하정웅컬렉션에 바탕을 둔 아카이브 집중 보존 연구시설로 꾸며진다. 미술관은 소장작품 5266점 가운데 하정웅컬렉션 2603점을 이관, 작품 및 작가연구는 물론 국내외 연구기관 및 연구자들과 함께 연구·협력·교류하는 거점을 구축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비롯해 국립미술관 및 아시아 유관단체와 공유·교류를 통해 플랫폼 기능을 수행하고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온라인 미술관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만복과 평안함을 기원합니다

광주공연마루서 2월 국악상설공연
풍물세상 굿패마루·올라 팀 등



광주문화예술회관이 2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국악상설공연을 광주공연마루에서 선보인다. 먼저 설 명절 당일인 2월1일에는 풍물세상 굿패마루가 '설 설에 설레임'이라는 주제로 무대를 연다. 굿패마루는 모든 이의 만복과 평안함을 기원하는 '운수대통(運數大通)'부터 관객들에게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는 풍물놀이인 '판굿', 빛고를 오일장의 흥을 해학적으로 풀어낸 '전통연희놀이' 등 코로나19로 지친 관객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재미있는 판을 발한다. 정월대보름인 15일에는 민간예술단체 올라(Ola)가 한 마음 한 뜻을 모아 복을 기원하는 'BLESS

(祝願), 힘을 합쳐 삶을 일구어가는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상사대어' 등의 공연으로 무대를 가득 채운다. 이어 16일에는 (사)아시아민족음악교류협회가 '국악, 새로이 날다'라는 주제의 공연을 2부로 나눠 진행한다. 제1부는 한국 고유의 전통 민속춤인 전통무용 '살풀이', 고(故)서용석 명인의 다양한 악기산조들의 가락을 기억할수록 곡으로 만든 서용석류 '산조합주' 등 전통국악으로 꾸며지며, 제2부에서는 평기 리듬으로 편곡한 '흥보가' 중 '박타령' 등 퓨전국악을 선보인다. 이밖에 타악그룹 일췌의 '인수화풍', 창작국악단 도드리의 '아리랑 광주', 루트머지의 '달맞이 가

세', 피리정악 및 대취타 광주호남지부의 '하늘과 땅의 소리' 등의 공연을 만날 수 있다. 한편 광주상설공연은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5회 광주공연마루에서 관람할 수 있다. 모든 좌석은 무료이며, 자세한 일정 확인과 예매는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또는 전화(062-613-8379)로 하면 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광주시립발레단 강은혜, 한국발레협회상 신인무용상

발레리나 강은혜(30·사진)가 한국발레협회상 신인무용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발레협회는 최근 제26회 한국발레협회상 신인무용상에 강은혜 광주시립발레단 수석무용수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에서 준 상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연을 보러 와주시는 분들을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다른 누군가에게 귀감이 되고자 한다. 열정을 잃지 않고 늘 노력하는 발레리나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동아여중·고를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무용을 전공한 강은혜는 2018년 광주시립발레단에 입단, 이례적으로 2년만에 수석무용수 자



리를 꿰차며 주목받았다. 전국무용제 우수 무용수상, 2021 대한민국 인재상 등을 수상했다. 한편 대상은 김동근 서울유스발레단 단장이 받았으며 최고남성무용수에게 주는 당쉐르 노브르상은 유니버설발레단 수석무용수 강민우, 최고 여성무용수가 받는 프리마발레리나상은 국립발레단 솔리스트 정은영에 돌아갔다. 시상식은 다음 달 12일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열린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문화재단 조직개편... 시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광주문화재단이 경영 4기 2년차를 맞아 조직개편과 인사를 단행했다. <관련기사 21면> 문화재단은 기존 1실 4본부 체제로 운영되던 조직을 개편해 청렴감사실, 경영혁신본부, 예술상상본부, 예술인보듬·소통센터, 문화공간본부 등 1실 3본부 1센터 11팀체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시민중심, 소통과 협력, 전문성' 3대 핵심가치를 반영했다. 시민이 체감하는 문화향유기회 확대와 예술현장 중심 지원체계 강화 등 예술인 권리보장 및 복지서비스 구축강화를 위해 '예술인보듬·소통센터'를 '팀' 단위에서 '본부' 단위로 확대한 것. 또한 미디어아트 플랫폼(AMT)개편과 더불어 미디어아트 분야 시정 행정수요 변화 등에 따른 예술 환경에 능동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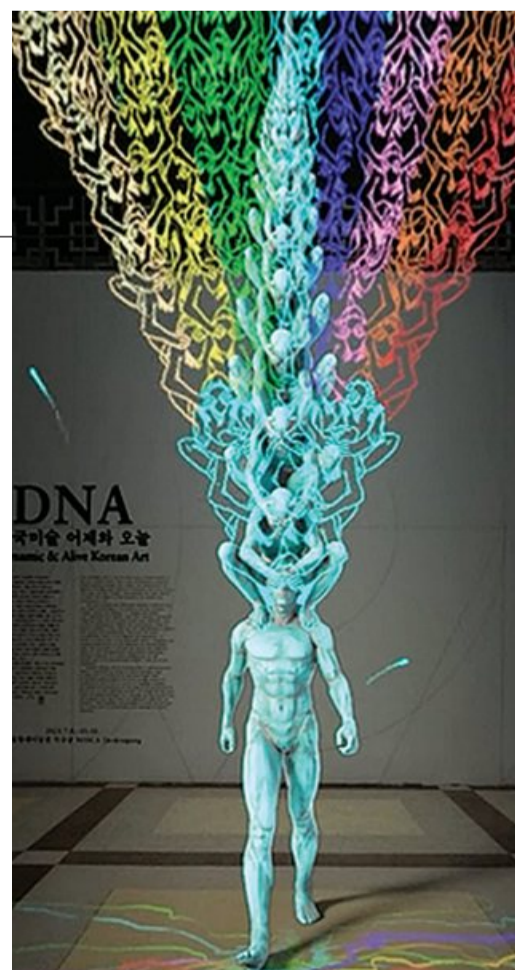
으로 대처하기 위해 유사기능 간 통폐합으로 업무 효율성을 확보했다. '예술인 보듬·소통센터'에는 '예술복지팀'을 신설하고 기존 '창작지원팀'과 함께 예술인 및 단체 지원, 창작지원권선정, 예술인활동증명 및 창작준비금 신청지원, 예술인 복지 및 법률상담, 매세나 등 예술인 활동 관련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를 했다. 지역콘텐츠팀은 예술상상본부로 이관, 예술상상본부 내에 문화예술교육팀, 지역콘텐츠팀, 문화사업팀을 뒀다. 예술인보듬·소통센터에는 예술복지팀을 신설하고 기존 예술상상본부의 창작지원팀을 이관하여 업무 효율화를 제고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국립현대미술관 MMCA VR 미술한류 영상시리즈 2편

서도호 작가 '카르마' 조회수 140만회 호응

국립현대미술관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초 공개한 MMCA VR 미술한류 영상시리즈 제2편 서도호 작가의 '카르마(Karma·사진)' 영상이 조회수 140만 회를 넘어서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MMCA VR은 한국미술의 진면목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한국작가의 작품을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로 담아낸 영상 시리즈다. 지난달 중순 공개된 '카르마'는 국립현대미술관 덕수궁에서 개최된 'DNA: 한국미술 어제와 오늘' 전시를 위해 특별 제작된 작품이다. 아디론가 곁여가는 인간의 어거 위로 인물들이 무한하게 위로 변

어나가며 일련의 탑을 이룬 형상으로, 지난 세대와의 끊임없는 관계성과 존재의 기원을 보여준다. 8월 공개된 이수경 작가의 '달빛 왕관·신라 금관 그림자' 영상 또한 조회수 69만 회를 기록했다. 국립현대미술관 유튜브에는 MMCA VR을 비롯해 36여 건의 전시투어영상, 폐기 구, 씨파카, 기리보이, 루시드폴, 정재형 등이 함께한 공연 MMCA 라이브, 52인의 작가와의 대화, 심포지엄 등 설 연휴 동안 집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미술콘텐츠 영상 1245건이 마련돼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광주비엔날레 재단 사무처장 공모

광주문화재단과 광주비엔날레 재단이 사무처장을 공모한다. 광주문화재단은 지난 20일 현 사무처장이 임기를 마침에 따라 신임 사무처장을 공모한다. 임기는 3년이며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업무는 대표이사 보좌, 재단 사무 총괄 조정, 소속 직원 지휘감독 등이다. 서류 접수는 오는 2월3일-9일까지며 서류전형과 면접 심사를 거쳐 오는 2월22일 합격자를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문의 광주문화재단 경영지원팀. 062-670-748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지난해말 현 사무처장이 그만두며 공석이 된 광주비엔날레 재단도 사무처장을 새로 공모한다. 해당 분야는 문화예술, 조직관리, 행정, 경영 등으로 대표이사 보좌, 사무처의 인력·시설·예산 등 사무의 조정 및 집행업무 관장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서류제출 기간은 오는 2월3일까지이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17일 합격자를 발표한다. 오는 3월11일부터 근무하게 되며 임기는 2년이다. 문의 광주비엔날레재단 062-607-897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